

■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그것과

수세식 변기

“
좋아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오줌을 뒤집어 쓰는
날벼락을 이제는 격지
말아야지요.”

“지 나가는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오줌 떨어집니다.”
이것은 16세기의 런던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실제상황이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나마 <제리코>라는 멀리 떨어진 변소라도 있었지만 일반 서민의 가정에는 큰통에 오물을 모아두었다가 집밖에 내다버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람들은 길거리를 지나다가 난데없이 쏟아진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기 일쑤였고 브라마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료인 모즐리와 걸어가다가 더러운 오물에 옷을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브라마로 하여금 수세식 변기를 고안하자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의 손재주는 그 결심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수세식 변기를 고안한 조 브라마는 영국 요크셔의 스탠버러 마을에서 1749년 4월에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브라마였지만 손재주만은 뛰어나서 나무를 깎고 다듬어 희안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가 열여섯살 되던 해에 1년마다 열리는 마을 축제에서 짐프경기에 출전한 브라마는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많이 움직이는 농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에서 나무를 조각하며 소일하게 되었다.

‘이젠 예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 목수일이나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선 브라마는 다리가 회복되자 목수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배우면서 일을 했다. 하지만 가난한 그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런던으로 가자. 런던에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있을 거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브라마는 즉시 집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들도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빌겠다고 환영해 주었는데 런던으로의 이같은 무작정 상경은 그의 나이 스물넷의 모험이었다.

런던에 입성한 브라마는 그의 뛰어난 손재주 덕분에 쉽게 일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직장에서 공작기계를 발명한 헨리 모즐리를 알게 되었다.

“모즐리, 자네가 개발한 공작기계로 수세식 변기를 만들어 보세.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혜를 짜내면 틀림없이 성공할거야.”

브라마는 모즐리에게 제안했고 모즐리도 흔쾌히 승락했다.

“좋아요.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오즘을 뒤집어 쓰는 날벼락을 이제는 격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둘이 합작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세식 변기의 개발은 브라마가 했고 모즐리는 그의 발명품인 공작기계를 돌려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천부적으로 재주가 있었던 브라마였기에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의 고향 스탠버러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서 그의 연구는 중단이 되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시면서 고생하신 어머니. 불쌍한 내 어머니.’

브라마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고향으로 달려간 브라마는 몸져 누우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6개월후 브라마의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브라마는 모친을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런던의 회사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브라마 이제 런던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을 떠신 어머니도 아마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실 겁니다.”

브라마는 모즐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런던으로 돌아가서 연구를 시작했다.

중단했던 수세식 변기의 작업부터 했는데 우선 목재로 깔끔하게 깎고 다듬어서 만들었다. 이 변기는 만족할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획기적인 제품임에는 틀림없었다.

브라마는 일단 완성된 수세식 변기를 이모저모 살펴보면서 결점을 찾아냈다.

우선 나무로 만든 것이기에 습기가 배어 오래 쓸 수 없었고 이음새에 오물이 끼어 불편하다는 점이였다.

일단 결점이 분석되자 브라마는 즉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음새를 없애기 위해 변기 자체를 통나무로 만들고 습기가 덜 배게 하기 위해 가죽을 댄 것이다.

완성된 수세식 변기의 인기는 대단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수세식 변기만은 필수품으로 여길 정도였다.

엄청난 양의 수세식 변기를 팔아치운 브라마는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사장이 되었고 모즐리도 주임조수로 그를 도와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브라마는 수세식 변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정밀하고 교묘한 자물통, 맥주 제조기, 석재용 톱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했다.

이렇듯 브라마는 손재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의 북부에서는 무엇인가 특별히 잘하는 젊은이를 가리켜 “저 젊은이는 꼭 브라마 같아.”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柳泰洙 記>